

현 불 뉴스

전국 포교사단 추진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포교사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전국규모의 포교사단과 교구별 포교사단, 주요사찰 포교사회의 구성을 내년도 주요 종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포교원은 2천여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 총무원 기획실에 제출했다. 포교사는 지난 82년부터 총무원이 체계적으로 배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약 4천여명이 있고 있다. 그러나 종단차원의 포교사에 대한 지도와 활용방안이 없어 포교사들의 능력이 인력 낭비되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적원 철회서 제출

(재)선학원 상무이사 법진스님은 9월19일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 선학원이사 제적원 철회서를 제출했다. 이날 법진스님은 "종단과 재단의 대화합조치에 따라 지난 4월 조계종에 제출한 선학원이사 9명의 제적원을 철회한다"고 말했다. 또한 법진스님은 지난 8·27합의에 따라 새로 선임한 이사 6명도 승격직임을 요청했다.

1억7천여만원 모금

지난 여름 수해로 재난을 입은 수재민들기 모금이 불교TV 9천9백만원 불교방송 7천4백여만원 등 1억7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구본사 사무장연수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은 9월20일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교구본사 사무장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총무원은 △교구예산편성 취지와 방법 △사실사업, 토굴과악 △사찰환경 실태 조사 △증거수집 수검사항 등의 중요사항을 전달했다.

봉은사청년회 '알뜰장터'

서울 봉은사 청년회는 오는 10월22일 경내에서 '아·나·바·다 알뜰장터'를 실시한다. 금년으로 5회째 맞는 알뜰장터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는 의미를 담고있으며 성인용품류와 유아용품, 가전제품, 가구 등을 판매한다. 청년회는 알뜰장터에 판매할 물품을 10월20일까지 접수받는다. (02)517-9551

"108배·3천배로 불심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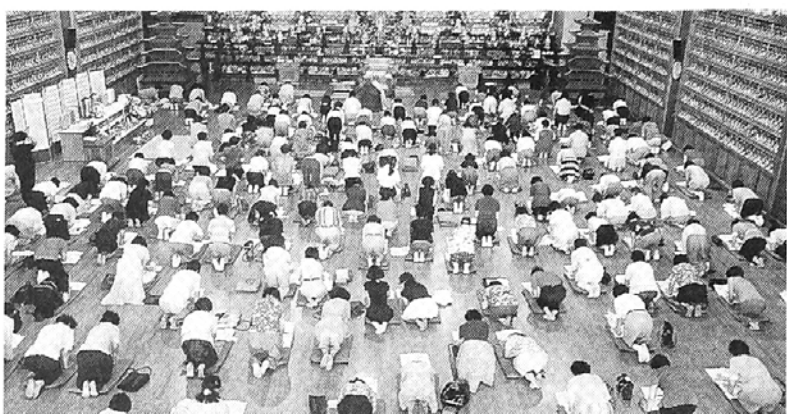
절마다 '절·참선' 수행

절하는 불자들이 늘고있다. 교리학적 위주에서 수행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불자들의 불교공부 형태가 변해가고 있다. 특히 도심포교단과 불교교양대학이 주로 기초교리강좌를 비롯한 교학공부에 치중했는데 최근에는 절수행 및 참선을 병행하고 있다.

서울 구룡사(주지 정우)는 지난 8월12일부터 시작된 백고좌법회 기간중 주지스님과 함께 참석자원이 법회를 전후해 매일 두차례 108배를 실시하고 있다. 정우스님은 "도심포교단이 포교를 강조하다보면

자칫 수행을 소홀히 할 경향을 경계하는데 108배가 직격"이라며 모든 법회에 절수행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에서는 1년에 두차례 2월과 8월을 3천배하는 달로 정해 회원이면 누구나 실천해야 한다. 또 이곳에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동산불교대학 수강생은 '南無阿彌陀佛'(나무 아미타불) 10만8천번 사발(寫佛)을 과제로 제출해야 한다. 2년 동안 하루 1시간은 써야 하는 분량이다. 동산불교대학 제5기 수강생인 김성순(66·한미음선원)이 정해 부부부자는 토요일 불교대학 강의시간 이외에 화요일을 절하는 날로 정해 동산법당을 찾는다. 서울 성수동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김씨는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교리로 배우려고만 한다"고 지적하고 "수행도 같이 해야 심심있는 참불

구룡사 백고좌법회중 하루 두번 108배
동산반야회 '2·8월은 3천배의 달'
법련사 매주 수요일 참선법회 실시
선학원 중앙선원 시민선방 이용자 늘어



서울 구룡사는 지난 8월 12일부터 시작된 백고좌법회 기간중 주지스님과 함께 참석자 모두가 법회를 전후해 매일 두차례 108배를 실시한다. (사진=고영배 기자)

자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언젠가는 아이들도 함께 3천배에 참여하게 될 것 같다"는 수행이 강조되는 분위기의 확산은 그동안 기본신앙과 교리공부에 치중되어 수행은 소홀했다는 반성과 교리공부를 바탕으로 불자들의 수행이 한단계 진전되는 현상이

로 풀이된다. 송광사 서울포교단 법련사(회주 현호) 청년회는 매주 수요일 청년법회와 별도로 금요일 청년법회를 열고 있다. 청년회원 박명기씨(34·일간스포츠 기자)는 "참선수행으로 불교를 체험하고 싶어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학원 중앙선원은 지난 9년부터 시민선방을 개설해 불자들은 물론 부근 직장인들에게 참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지도법사는 선학원장 성태스님과 부원장 성문스님이 직접 맡고 있다. 매일 점심시간에 10여명의 단골선객이 찾고 있다.

정성은 기자



교산동 일대에서 불교유물이 계속 발견되어 백제 불교 성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금암산에 있는 마애불.

남한산성 백제 불교성지 '가능성'

'天王' 명문 새겨진 기와조각 발견... '천왕사 터' 추정

경기 하남시 교산동 일대가 백제 불교의 성지(하남 위례성)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유물이 잇달아 발견되고 있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9월18일 불교TV는 이 일대에서 천왕(天王)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조각을 발견했다고 전하고, 이곳이 천왕사 터였으며, 백제불교의 성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하남시 교산동 일대는 백제 문화연구원(회장 강찬석)이 지난 5년동안 지표조사를 계속해오면서 각종 사료와 그동안 출토유물, 조사결과를 통해 한성백제의 하남 위례성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해 온 곳. 천왕사는 <삼국사기> 백제 의자왕전에 나타나 있는 사찰로 삼국사기는 의자왕 20년 백제 멸망의 조짐으로 천왕사와 도양사에 자연재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는 "위례성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교산동 일대를 비롯해 인근 춘궁동과 봉촌토성, 광주군 불당리 등 여러 곳이며 교산동 일대를 위례성으로 단정할만한 증거자료는 아직 없다"며 "확실한 것은 심도깊은 학문적 연구를 토

대로 발굴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학사 이전 무관심" 중앙승가대 학인스님

日서 한반도 평화기원비 제막

10월1일 한·중·일 천태종 '지자대사열반 1400주년' 합동 범요식

한·중·일 천태종은 10월1일 일본 천태종 총본산 연직사 근방중당에서 한국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을 비롯 운덕 총무원장, 중국 국청사주지 가명법사 일본 천태종 우메야마파주를 비롯한 사부대중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태지자대사 열반 1400주년 한·중·일 천태종 합동범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범요식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은 '보은경전문'을 봉독하여 천태대사의 업적을 기렸으며 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축사를 통해 3국 불교문화교류와 유대를 강화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중·일 천태종 스님들은 세계인류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에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기원비를 제막했다. 이 비석은 3국의 천태종 종정스님들이 천태지자대사 교훈의 글구

를 한면씩 붓글씨로 써서 새겼으며 앞면에는 '세계인류의 안녕과 한반도 평화기원'이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이어앞서 9월 30일에는 '천태대사 보은의'라는 주제로 전야제가 열렸다. 전야제에서 한·중·일 3국의 천태종은 각 나라에서 전송해온 불교음악 불교미술 불교의례등 전통예술 공연을 펼쳤다.

2~3회 갖바위 부처님을 찾아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날 약함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약함을 조상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가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이에따라 지난 8월초 갖바위 부처님 뒷산에서 화강암을 채취, 종형부도 모양의 약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개발에 따른 사찰환경 침해 현상을 파악하는 사찰환경실태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성관)는 9월19일 교구본사사무장 연수교육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계종 전사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미 1일부터 조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1차 서면조사 기초실태조사서를 2일까지 발송하고 2차 전화를 통한 보장조사에 이어 3차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사찰 환경실태가 진행되고있는 곳이 20여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분쟁가능지역이 상당수 존재할

세무사 2백여명 불자회 창립

무료세무상담 실시

한국세무사불자회가 지난 9월23일 조계종 총무원내 불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창립회는 2백여명의 세무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송호승씨(56·영진세무

회계법인)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했다. <관련 인터뷰 4면> 세무사불자회는 이후 월례법회와 무료세무상담등의 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 3천5백여명에 이르는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포교활동을 펼쳐 전국 7개 시도에 지부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가게에 다른 사찰환경 침해 현상을 파악하는 사찰환경실태 조사가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성관)는 9월19일 교구본사사무장 연수교육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계종 전사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이미 1일부터 조사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1차 서면조사 기초실태조사서를 2일까지 발송하고 2차 전화를 통한 보장조사에 이어 3차 방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 사찰 환경실태가 진행되고있는 곳이 20여개로 확인되고 있으며 분쟁가능지역이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여 실태조사를 착수하게됐다"며 "사찰환경문제를 유형별로 정리해 사찰환경권리 법적 제도적장치를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우학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목고...
이 시대 베스트셀러
-나오느 내놓-
-좋은인연 책-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친도 정력...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수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계·화엄경약찬·예불문·아이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약간 9월 개강) (053)474-8228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 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대구한방 : (053)564-3355
대구여래한방

천혜의 전원주택
사찰부지
● 경기도 양평군 지체면 금액 : 7,000만원
● 지목: 대지(2필지), 평수 : 234평
● 건평 : 26평(원계 화방) 기공보일러
● 감실에서 1시간 10분거리(정남향)
● 마당에 정자나무 2그루 잔디정원
● 체전도약 100평도 붙어 있음
● 주의경관 수려하고 옆에 계곡물이 있음
● 경기도 양평군 지체면, 금액 6,500만원
● 지목: 준농림(III) 평수 : 102평
● 진입로 및 토목공사(평탄작업해 드림)
● 경관이 수려하여 참선 도량및 기도도량으로 최적지
● 투자성도 매우 좋음, 감실에서 1시간 10분거리 (카푸나 영화 촬영장 150m 근접)
전원주택 전문업체 **정산**
연락처 FAX : (02) 420-5474-5
TEL : (02) 413-7295 불자 안태진 합장
B, B : 012-272-0025

중국명문 한의대 고급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대학 : 남경중의약대학
◆대상 : 한의사, 한약사, 침·기공에 관심 있으신 분
◆기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잔염, 비만 좌골신경통 침치료, 기공등
◆연수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수료증 수여
◆인원 : 15명 이내
◆출발일 : 1996년 11월 1일 (금)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 남경 660-7129
문의처 : 자매대학 삼학불교대학
전화 : 02)511-2026~8